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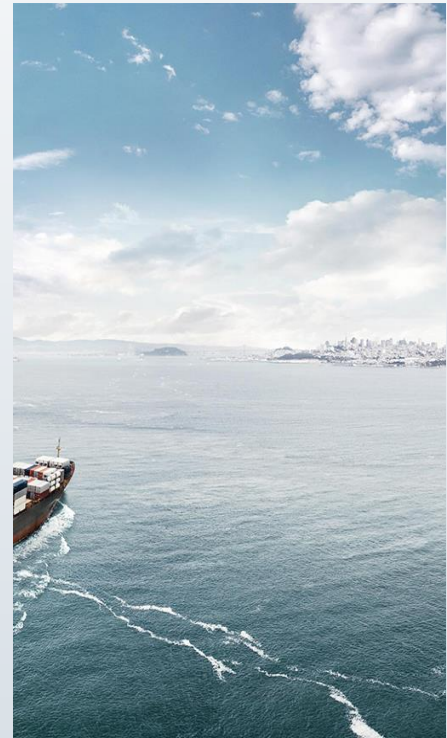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151

Updated May 30, 2017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4
Bulk Carrier	9
- BC Sales Report	
Tankers	13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20
Useful Information	22
Contact Information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MARKET OVERVIEW

1. 신조선 시장동향

현대미포조선이 영국 '유니온 마리타임'으로부터 50,000 DWT MR 탱커 2 척+2 척(옵션)을 수주하였다. 계약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형선 신조선가가 평균 3350 만달러 수준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박인도 시기는 2018 년 말/2019 년 초 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 총 3 척의 VLCC 수주 소식이 있었다.

홍콩의 TAI CHONG CHEANG 으로부터 319,000 DWT VLCC 2 척을 수주하여, 2019 년 내 인도 기한으로 선가는 8,000 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 월에 그리스 ENESEL 과 체결한 300,000 DWT VLCC(2 척) 신조계약에 1 척을 추가 수주한 것이다. 이 3 번째 선박은 2018 년 하반기 인도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이 그리스 선주 키클라데스로부터 115,000 DWT 아프라막스 탱커선 5 척 + 2 척(옵션)을 총 3 억달러에 수주했다. 계약 선가는 척당 약 4400 만달러다. 성동조선이 신규 계약을 맺은 것은 2015 년 12 월 이후 1 년 6 개월 만이다. 성동조선은 상반기 중대형 원유운반선 두 척과 고부가가치 선박인 셔틀탱커 두 척의 추가 수주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모잠비크 북부 해상 4 광구 개발(코랄 프로젝트)에 쓰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FLNG) 건조 계약을 이르면 다음달 초 체결한다. 계약 규모만 약 25 억달러(한화 3 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모잠비크 북부 로부마 분지에 위치한 4 광구에 해양 설비인 FLNG 를 투입해 약 25 년간 337 만톤의 LNG 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2. 벌크선 시장동향

BDI 가 5 월 초에 비해 161 포인트가 하락하여 900 포인트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까지 중고선가는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체선가 하락하면서 더 이상 중고선가를 받혀주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스 SEANERGY 사가 케이프 벌크선 "CPO ASIA" (179,558 DWT, BLT 2011 DAEWOO-MANGALIA)를 2,950 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한국/일본 건조선에 비해 2~3 백만 달러정도 낮은 수준이다.

I . MARKET OVERVIEW

파나마스 부문에서 "SANTA PAULA" (77,171 DWT, BLT 2009 OSHIMA)가 1,500 만 달러에 매각 되었다. 3 월에 매각된 선령 2 년 더 많은 "BARILOCHE" (75,395 DWT, BLT 2007 UNIVERSAL)가 1,380 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으로 보여진다.

3. 탱커선 시장동향

탱커선 거래량이 다소 늘어난 모습이다. 특히 대형선 부문에 거래량이 집중되었다.

VLCC "TI TOPAZ" (319,430 DWT, BLT 2002, HYUNDAI SAMHO HI)가 2,100 만 달러 수준에 매각되었다. 지난주 매각보고된 "AMANTEA" (309,287 DWT, BLT 2002 SAMSUNG HEAVY)보다 250 만달러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TI TOPAZ 는 10 월에 선급검사 기한을 앞두고 있고, AMANTEA 는 선급검사를 패스하고 거래가 되었다. 노후선의 경우 선급검사 패스 여부가 중요한 선가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해체선 시장동향

라마단(5 월 27 일 ~6 월 25 일)이 시작되면서 해체선시장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해체선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캐쉬바이어들의 손실이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대형선의 경우 가격하락폭이 더 컸던 만큼 손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해체선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장에서의 불활실성을 키우는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II . ISSUE & TREND

1. [보릿고개 넘는 조선] '노르쉬핑'으로 하반기 수주 기대

국내 조선 5 개사가 세계 최대 조선해양박람회 '노르쉬핑'에 참가해 올 하반기 수주 작전을 펼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와 영업 임원진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노르쉬핑 참석을 위해 노르웨이 오슬로로 출출동, 해외 선사와 접촉하고 선박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르쉬핑은 홀수해마다 열리며 그리스 아테네의 '포시도니아', 독일 함부르크 '국제조선해양기자재박람회'와 더불어 세계 3 대 조선해양 박람회로 꼽힌다. 노르쉬핑에는 올해도 50 여개국에서 1100 여개의 해운선사와 조선사들이 참여한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룹 선박영업본부의 가삼현 사장을 비롯해 영업·설계 부문 임직과 실무자 20 여명이 참석한다. 대우조선도 정성립 사장이 임직원 10 여명과 함께 박람회 참석차 출장을 떠난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어서 박대영 사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영업과 기술 부문 임원과 실무자 등 10 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LNG FSRU(부유식 가스 저장·재기화 설비), 현대삼호중공업은 LNG 운반선, 현대미포조선은 LNG 병커링, 삼성중공업은 셔틀탱커를 전시하기로 했다. 노르쉬핑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관 공동 부스'로 운영된다.

최근 북유럽 선주들은 친환경 선박인 LNG 선과 해양 설비인 LNG-FSRU(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에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3사는 공통적으로 이들 선박의 모형을 전시하고 관련 영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르쉬핑은 조선 관련 산업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라며 "친환경 선박에서 앞서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올해 하반기 수주 영업 활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I . ISSUE & TREND

2. 물동량 상승세 선사들 '빙그레'...해운업 기대감 ↑

올해 4 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1 억 2962 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일 해양수산부와 각 지역 항만공사에 따르면 4 월 수출입화물은 1 억 795 만톤, 연안화물은 2167 만톤을 기록했다. 전국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4 월보다 8.9% 증가한 234 만 6000TEU(1TEU 는 20 피트 컨테이너 1 대)를 기록했고,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8874 만톤으로 4.0% 늘었다.

4 월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10.5%, 환적물동량은 6.8% 증가했다. 환적이란 컨테이너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중간 항구에서 다른 배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4 월 부산항의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88 만 6000TEU 로 작년보다 11.5% 늘었고, 환적 물동량은 88 만 TEU 로 11.4% 늘었다. 부산항의 3 월 환적 물동량은 작년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중국항만의 기상악화와 동남아 환적물량 증가로 부산항 환적 물동량이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란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4 월 부산항에서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15 만 332TEU 를 처리했다.

현대상선이 4 월 부산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량은 8 만 1000TEU, 환적 물량은 6 만 8000TEU 로 작년보다 각각 68%, 77%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물량이 많이 증가했으며, 일본·베트남·인도 등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상선은 올해 150 만 TEU 를 부산항 처리물량 목표로 잡았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량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월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을 항구별로 보면 대산항은 이란 등 중동에서 원유수입, 석유정제품 수출물량 증가로 작년보다 16.3% 물동량이 증가했다.

광양항은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광석수입 및 여수석유화학단지에서 수입한 석유정제품 증가로 작년보다 10.0% 늘었다. 이에 반해 포항항은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광석 수입물량, 철재의 연안운송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19.8% 감소했다.

울산항에서 4 월 처리된 물동량은 1699 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3 만톤)보다 3.5%(57 만톤) 늘어났다. 울산항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수입화물(869 만톤·1.6%), 수출화물(615 만톤·5.3%),

II . ISSUE & TREND

환적화물(37 만톤·140.3%)이 증가했으나 연안화물(177 만톤·-4.8%)은 감소했다. 울산항 주력화물인 액체화물은 1350 만 t으로 작년보다 0.1% 늘었다. 액체화물은 4 월 전체 물동량의 79.4%를 차지했다. 액체화물을 제외한 일반화물은 350 만톤으로 작년보다 18.8% 증가했다.

컨테이너 화물은 3 만 9431TEU 를 처리해 작년보다 13.5%(4695TEU) 증가했다. 4 월 외항선 입항은 1021 척으로 작년보다 1.8%(18 척) 증가했으며, 외항선 입항 총 톤 수도 1725 만 2000 톤으로 1.6%(27 만 6000 톤) 늘었다. 신차 효과와 친환경 차 수출 호조 등으로 자동차와 차 부품의 수출과 환적 물동량이 증가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고, 그 영향으로 총 물동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4 월 물동량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 4 월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25 만 9828TEU 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4% 증가했다. '사드 갈등'에 대한 우려 속에도 대중국 교역량이 15 만 5764TEU 로 전년 동기 대비 16.9% 늘어나는 등 극동아시아와 중동 지역 물동량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천항은 지난해 3 월 송도국제도시 신항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이 개장한 뒤 지난달까지 14 개월째 역대 월 물동량 최대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처리 목표인 300 만 TEU 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소형 조선소의 눈물...은행 보증 기피로 일감 포기

국내 소형 조선소들이 선박을 수주하고도 은행에서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받지 못해 수주가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 일 경남 고성외의 조선소인 한국야나세 작업장(야드)에는 신규 수주가 중단돼 선박 부품 제조나 수리 작업만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고성외의 조선·기자재 업체인 삼강엠엔티의 송무석 회장은 요즘 밤잠을 자지 못 한다. 천신만고 끝에 따낸 수주 물량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이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작년 8 월 우민해운이 발주한 케미칼 탱커선 3 척(516 억원)을 수주했는데 1 척만 은행 보증(RG·선수금환급보증·키워드 참조)을 받았고, 나머지 2 척은 은행 측이 보증을 거부해 거의 취소 직전이다. 그나마 1 척도 0.5% 정도인 수수료를 4%로 올려줬고, 주식과 예금을 담보로 맡기면서 은행에 6 개월 동안 사정 끝에 겨우 RG 를

II . ISSUE & TREND

발급받았다. 송 회장은 "100 억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인데도 RG 발급을 해주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일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행 보증(RG)을 받지 못해 수주한 선박 계약을 날려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은행, 소형 조선소에 RG 발급 거부... "비 오는데 우산 빼앗는 격"

지난 25 일 경남 고성군의 덕광중공업. 4 만 3000 m²(1 만 3000 평) 야드(선박 건조작업장)엔 100t 이 안 되는 소형 어선(漁船) 다섯 척을 50 여 명의 근로자들이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야드의 10 분의 1 은 텅 빈 상태였다. 회사 한 직원은 "일감이 없어 어선을 만들고 있지만 이마저도 7 월이면 끊겨 회사문 닫아야 할 판"이라며 "RG 때문에 수주가 안 돼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덕광중공업은 작년부터 동남아 등 국내외 선사들로부터 소형 유조선 등 10 여 척 수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계약은 최종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회사 관계자는 "선박 발주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형 조선소 사정도 마찬가지다. 컨테이너선 고박 장치를 생산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해온 한국야나세는 작년 11 월 국가가 발주하는 어업지도선 2 척을 수주했다. 하지만 낙찰을 받고도 은행에서 보증을 받지 못해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계약 무산 책임을 지고, 위약금 21 억원(계약금의 5%)까지 물어야 할 처지이다. 한국야나세는 RG 때문에 아예 신규 선박 수주 영업을 포기한 채 수리 영업으로만 연명하고 있다. 이상석 덕광중공업 대표는 "은행에 새로 대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박 건조 보증만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며 "업황 좋을 때는 수수료 챙기려고 서로 RG 를 발급해 주겠다더니 이젠 은행 때문에 소형 조선소들이 모조리 말라 죽을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소형 선박 발주 잇따르는데... 중국 조선소 찾는 선사들

소형 조선소들이 RG 를 받지 못하자 외국 선사는 물론 국내 선사조차 중국 조선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올해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선박 20 척 중에서 13 척을 중국 조선소가 가져갔다. 중국 정부는 선사에게 선박 건조 대금을 90%까지 대출해주고, 가격도 우리보다 10%가량 싼 이유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RG 발급이 안 되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우영준 한국야나세 대표는 "외국 선사사들은 해양 사고에 대비해 선가가 10% 비싸더라도 기술력이 좋은 한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려 한다"며 "하지만 RG 발급이 아예 안 되는 분위기이다 보니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II . ISSUE & TREND

4. 세계 물동량 늘고 글로벌 경기 순풍 부나

올해 1.4 분기 전세계 무역량이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특히 항공화물 수요, 대형 컨테이너선 운송 물량은 10%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세계 경제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올 한 해 더 강한 성장세를 누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장기업들의 올해 1.4 분기 성장률은 6 년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월 전세계 상품 무역량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올해 1.4 분기 무역량은 전분기보다 1.4% 늘어났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세계 무역 흐름이 2016 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속도로 성장했지만 2017 년에 반등할 것이란 신호들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WTO "내년 세계 상품무역량 4% 늘 것"

무역량 회복은 특히 물류 업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항공교통협회(IATA)에 따르면 올해 1.4 분기 항공화물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세계 1 위 해운사 머스크라인을 보유한 덴마크 최대 복합기업 A.P. 밀러-머스크는 올해 1.4 분기 컨테이너량 및 매출이 10% 늘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최근 몇 년간의 무역 둔화 움직임이 세계 경제성장 약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세계 무역량 둔화 배경에 대해 "글로벌 저성장과 중국의 투자에서 소비,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재균형 정책으로 투자 증가세와 수출 성장세가 둔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투자와 무역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WTO 는 최근 보고서에서 투자지출이 많을 때 무역흐름이 특히 강해지는 반면 위기 이후 공장 및 설비 지출 감소가 무역둔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들어 세계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목격되면서 전세계 무역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WTO 는 올해 전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내년에는 최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IMF 는 전세계 무역량이 올해 3.8%, 내년에 3.9%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도입할지 여부에 크게 달려있다고 WSJ 는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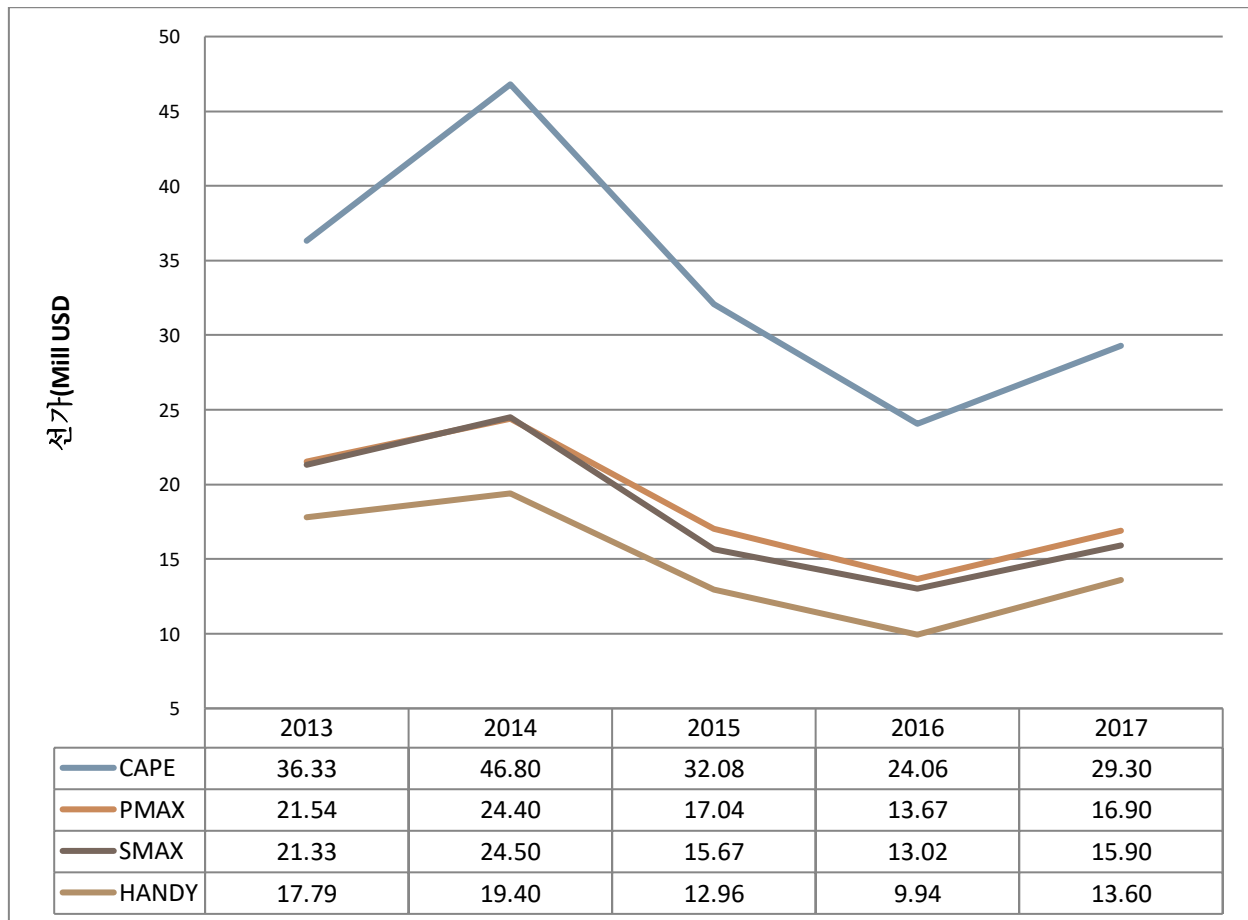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3	2014	2015	2016	2017
Capesize 180K	36.33	46.80	32.08	24.06	29.30
	6%	29%	-31%	-25%	22%
Panamax 76K	21.54	24.40	17.04	13.67	16.90
	-2%	13%	-30%	-20%	24%
Supramax 56K	21.33	24.50	15.67	13.02	15.90
	-4%	15%	-36%	-17%	22%
Handysize 32K	17.79	19.40	12.96	9.94	13.60
	2%	9%	-33%	-23%	37%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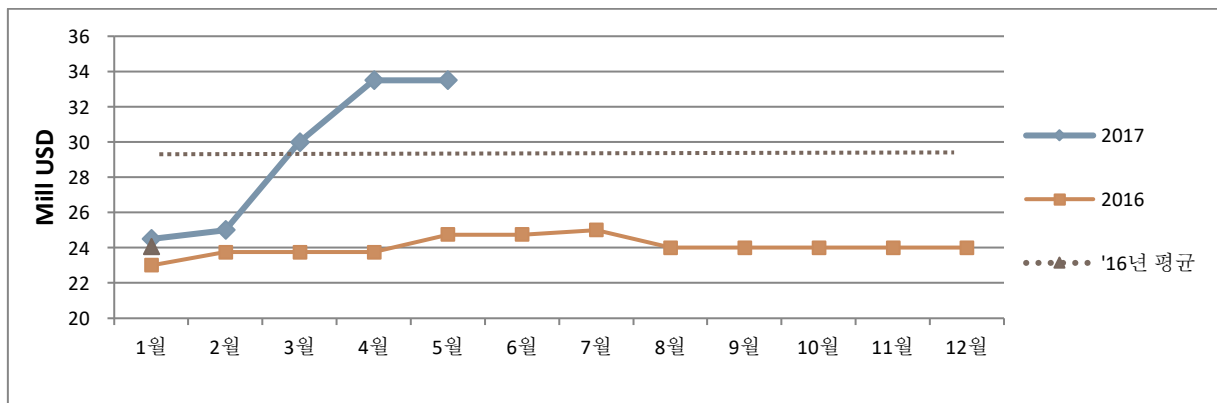




I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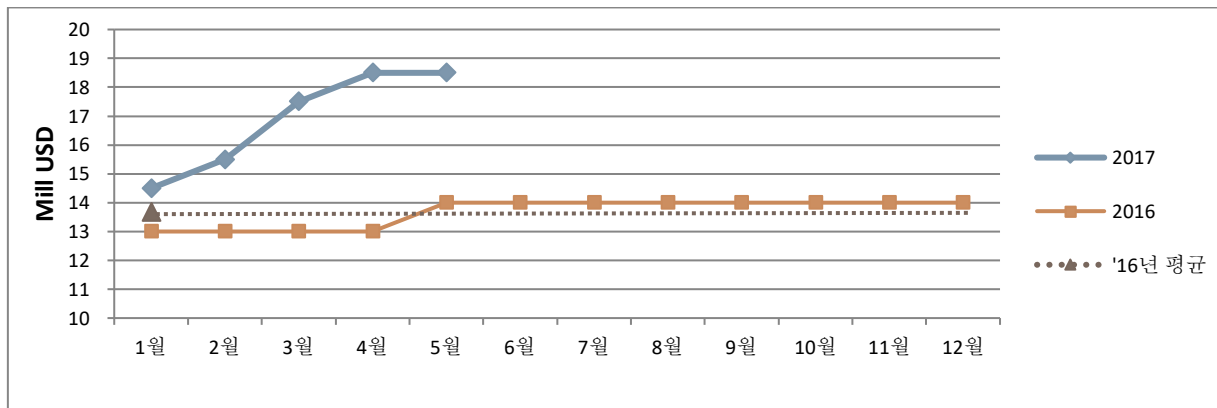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7	CAPE 180K	선가	24.50	25.00	30.00	33.50	33.50		29.3
		전월대비	2.1%	2.0%	20.0%	11.7%	0.0%		-
		전년대비	6.5%	5.3%	26.3%	41.1%	35.4%		21.8%
	PMAx 76k	선가	14.50	15.50	17.50	18.50	18.50		16.9
		전월대비	3.6%	6.9%	12.9%	5.7%	0.0%		-
		전년대비	11.5%	19.2%	34.6%	42.3%	32.1%		23.7%
	SMAx 56k	선가	14.50	15.00	16.00	17.00	17.00		15.9
		전월대비	3.6%	3.4%	6.7%	6.3%	0.0%		-
		전년대비	11.5%	25.0%	33.3%	41.7%	30.8%		22.1%
HANDY 32k	선가	13.00	13.50	13.50	14.00	14.00		13.6	
	전월대비	8.3%	3.8%	0.0%	3.7%	0.0%		-	
	전년대비	36.8%	42.1%	42.1%	47.4%	55.6%		36.9%	
2016	CAPE	23.00	23.75	23.75	23.75	24.75	24.75	24.1	
	PMAx	13.00	13.00	13.00	13.00	14.00	14.00	13.7	
	SMAx	13.00	12.00	12.00	12.00	13.00	13.00	13.0	
	HANDY	9.50	9.50	9.50	9.50	9.00	9.00	9.9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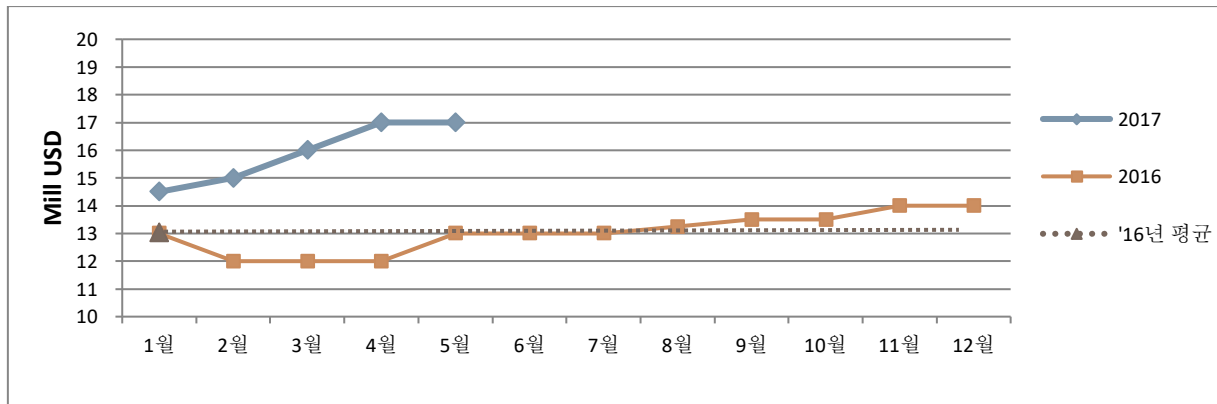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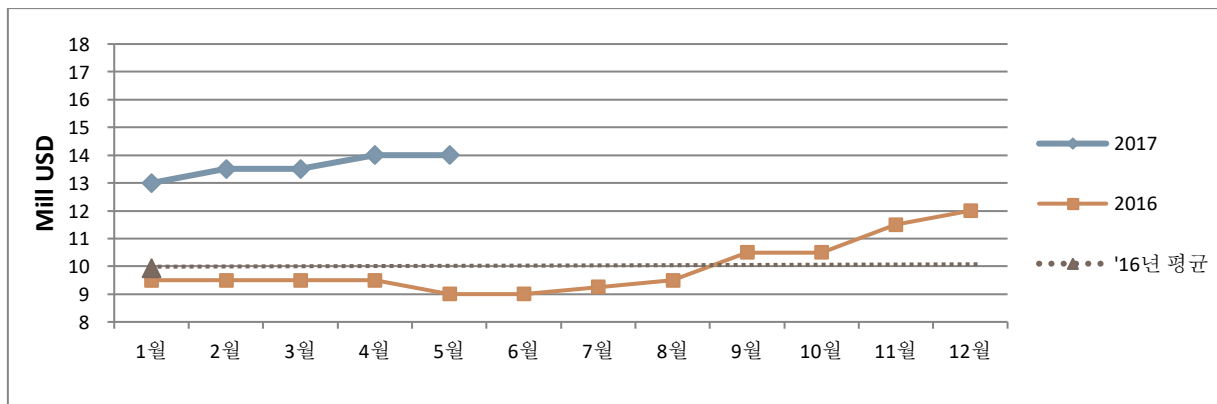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CPO ASIA	179,850	2011	ROMANI A(KOR)	B&W		29.5	Greek buyers (Seanergy)
BC	SANTA PAULA	77,200	2009	JAPAN	B&W		15	undisclosed buyers
BC	OCEAN AMBER (geared)	73,350	1994	KOREA	B&W	C 4x25t	3.8	Chinese buyer, laid up, out of class
BC	NEW DYNAMIC	35,278	2007	JAPAN	B&W	C 4x30t	9.2	Greek buyer
BC	ACACIA BULKER	32,759	2005	JAPAN	MITSU	C 4x30.5t	7.3	Far Easter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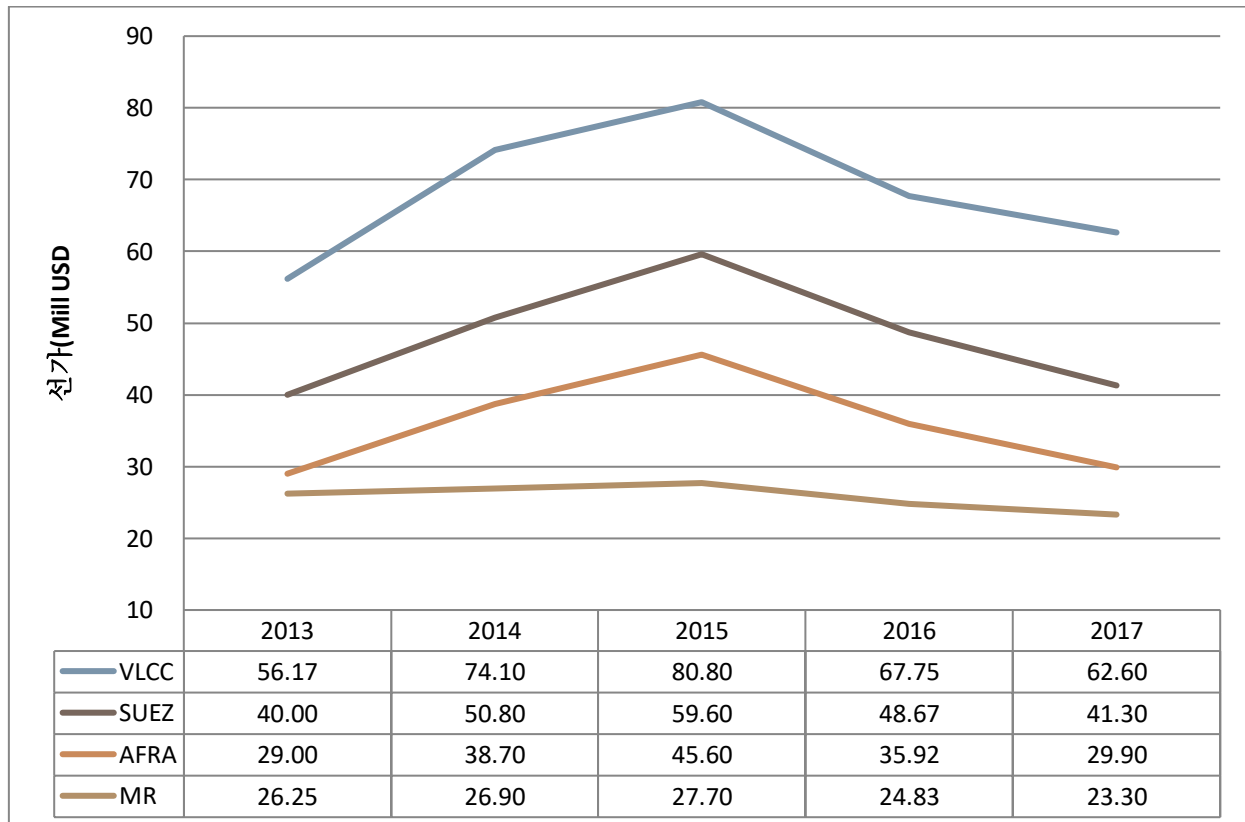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VLCC 310K	56.17	74.10	80.80	67.75	62.60
	-10%	32%	9%	-16%	-7.6%
Suezmax 160K	40.00	50.80	59.60	48.67	41.30
	-10%	27%	17%	-18%	-15.1%
Aframax 105K	29.00	38.70	45.60	35.92	29.90
	-5%	33%	18%	-21%	-16.8%
MR 47K	26.25	26.90	27.70	24.83	23.30
	5%	2%	3%	-10.3%	-6.2%
Chemical Tanker IMO II 13K	11.94	13.00	12.60	13.92	12.45
	13%	9%	-3%	10.4%	-10.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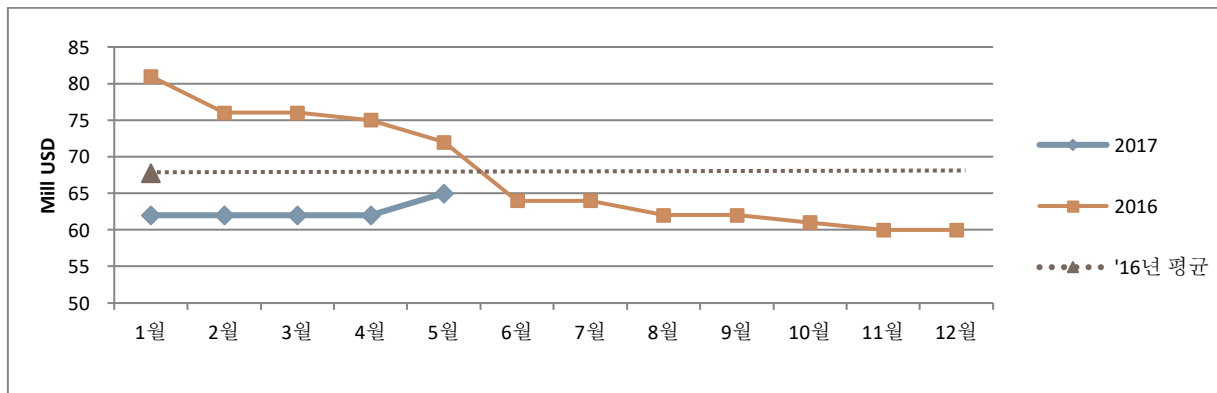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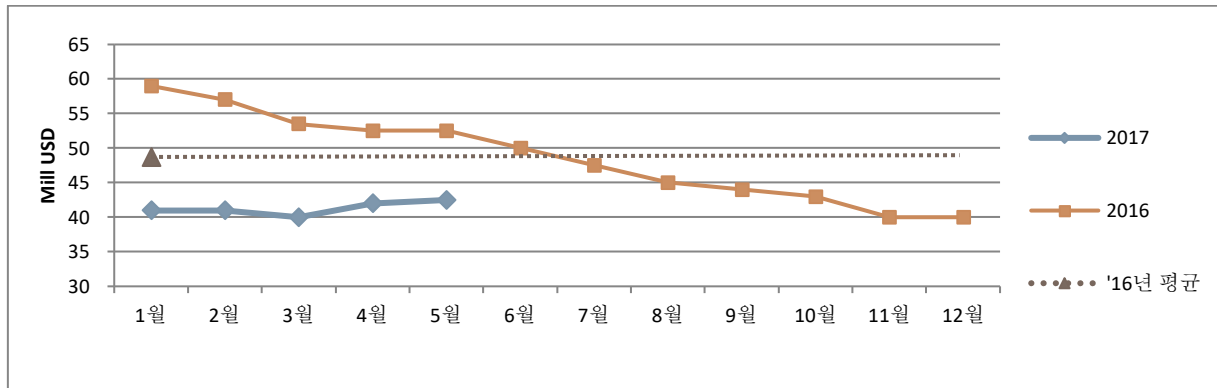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7	VLCC 310K	선가	62.00	62.00	62.00	62.00	65.00		62.6
		전월대비	3.3%	0.0%	0.0%	0.0%	4.8%		-
		전년대비	-23.5%	-18.4%	-18.4%	-17.3%	-9.7%		-7.6%
	SUEZ 160K	선가	41.00	41.00	40.00	42.00	42.50		41.3
		전월대비	2.5%	0.0%	-2.4%	5.0%	1.2%		-
		전년대비	-30.5%	-28.1%	-25.2%	-20.0%	-19.0%		-15.1%
	AFRA 105K	선가	30.00	30.00	28.50	30.00	31.00		29.9
		전월대비	3.4%	0.0%	-5.0%	5.3%	3.3%		-
		전년대비	-33.3%	-25.0%	-28.8%	-25.0%	-20.5%		-16.8%
	MR 47K	선가	22.50	22.50	22.50	24.00	25.00		23.3
		전월대비	2.3%	0.0%	0.0%	6.7%	4.2%		-
		전년대비	-25.0%	-18.2%	-18.2%	-12.7%	-5.7%		-6.2%
CHEM IMO2 13K	선가	12.25	12.00	12.75	12.50	12.75		12.4	
	전월대비	-5.8%	-2.0%	6.3%	-2.0%	2.0%		-	
	전년대비	-12.5%	-15.8%	-10.5%	-12.3%	-10.5%		-10.9%	
2016	VLCC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67.8
	SUEZ	59.00	57.00	53.50	52.50	52.50	50.00		48.7
	AFRA	45.00	40.00	40.00	40.00	39.00	37.00		35.9
	MR	30.00	27.50	27.50	27.50	26.50	24.00		24.8
	CHEM	81.00	76.00	76.00	75.00	72.00	64.00		67.8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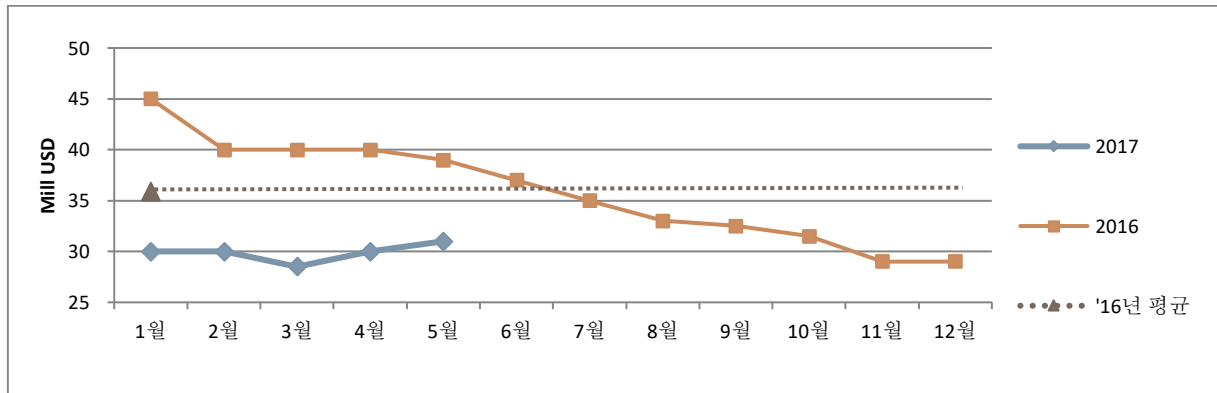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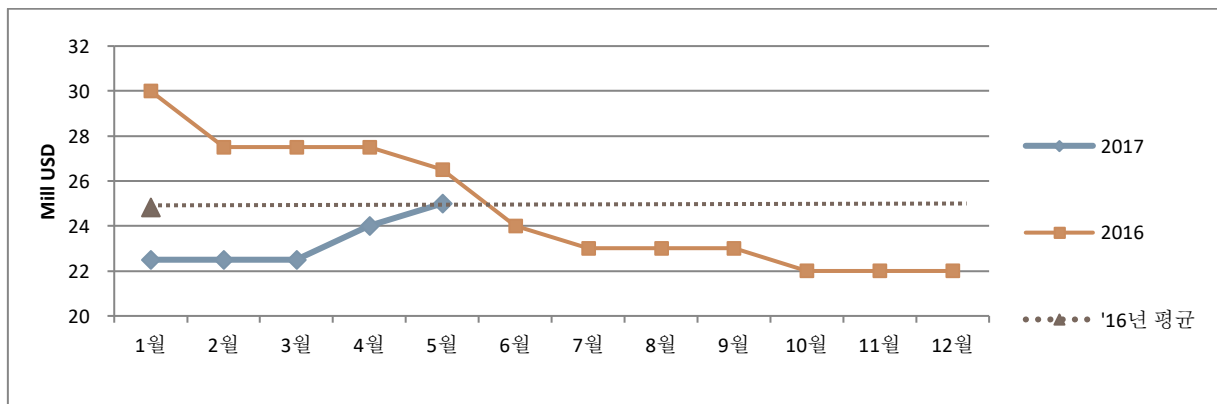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47K



IV.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TI TOPAZ	319,430	2002	KOREA	B&W		21	Greek buyers (New Shipping)
TANKER	RATNA NAMRATA	105,830	2008	KOREA	B&W		21.5	Greek buyer (Centrofin Management)
TANKER	RATNA SHRADHA	105,830	2008	KOREA	B&W		21.5	Greek buyer
TANKER	RATNA SHRUTI	105,830	2008	KOREA	B&W		21.5	Norway buyer
TANKER	BLS ABILITY	84,999	2002	JAPAN	B&W		8.5	Greek buyer
CHEM	MARE PACIFIC	68,467	2001	JAPAN	B&W	2&3	6.75	Russia buyer
TANKER	MARE ATLANTIC	68,467	2001	JAPAN	B&W	2&3	6.75	
TANKER	TAMARIN	50,129	2008	KOREA	B&W		17.75	Greek buyer
TANKER	SHIMANAMI SUNSHINE	47,999	2004	JAPAN	B&W		10	Greek buyer
CHEM	CHAMPION TRUST	40,727	1995	CROATI A	B&W	3	6.0	undisclosed buyer
CHEM	ARGENT EYEBRIGHT	33,609	2009	JAPAN	MITS U	2&3	25.5	Norwegian buyers (Odfjell)

2)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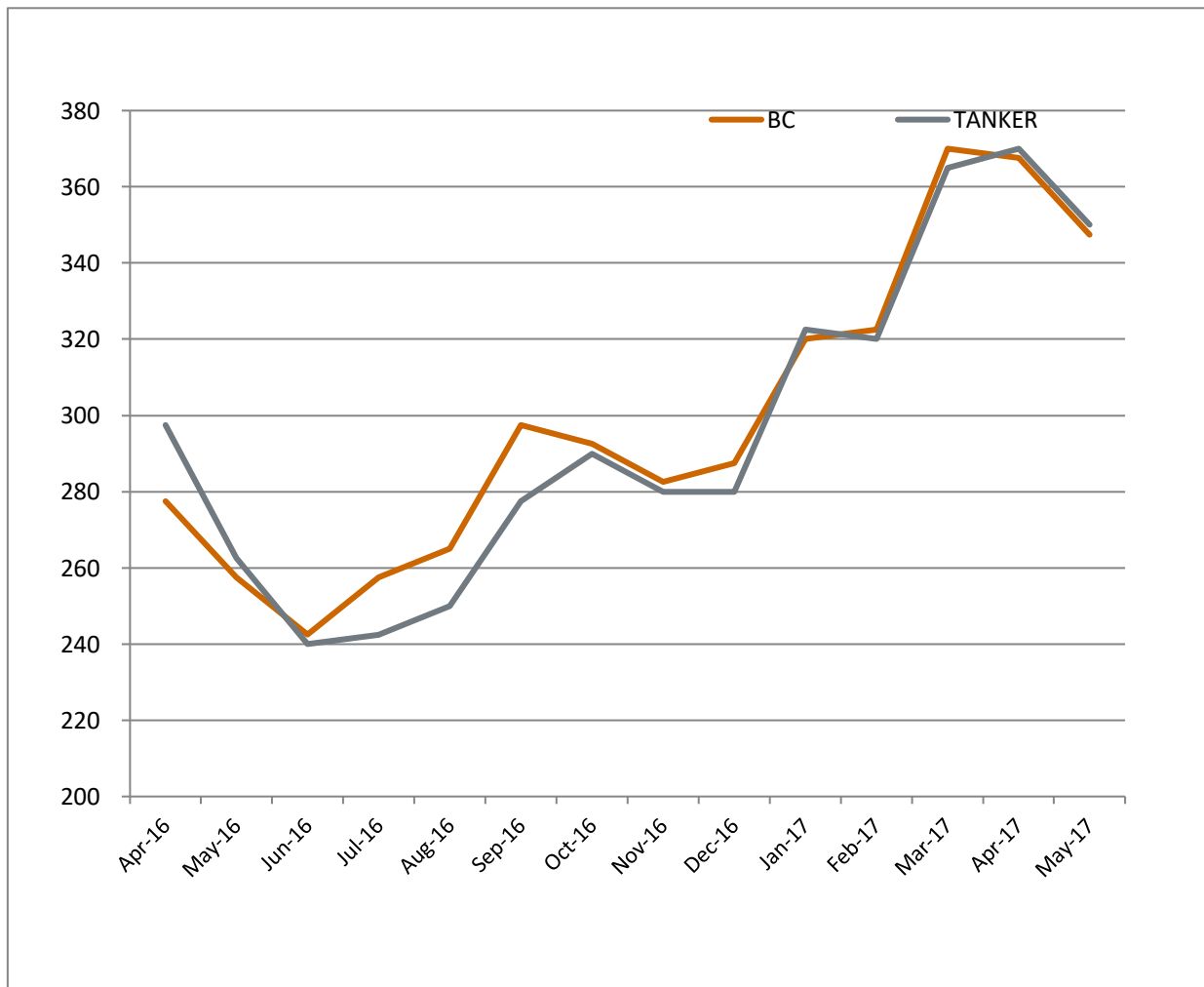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NANSEN STRAIT	67273	2005	KOREA	SULZ	5047	TEU	7.4	Greek buyers (Cyprus Maritime)

V .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5 평균		2016 평균		2017 평균		2016 년 5 월	2017 년 5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41.04	-28.2%	265.63	-22.1%	345.50	30.1%	262.50	350.00	-5.4%	33.3%
BC	336.54	-28.2%	267.71	-20.5%	345.50	29.1%	257.50	347.50	-5.4%	35.0%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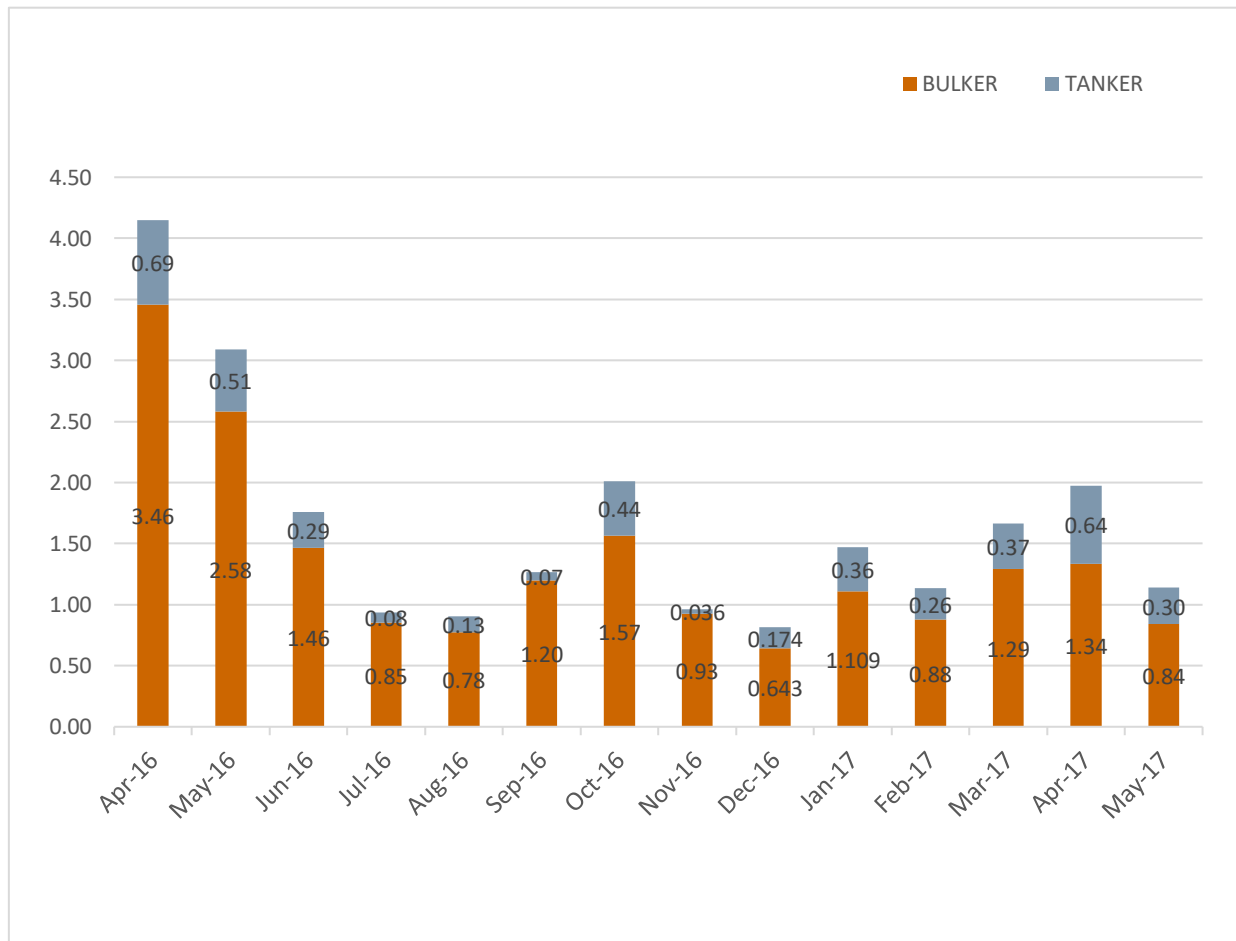


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6 년		2017 년 누적				2016 년 5 월		2017 년 5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86	46	1.93	67.4%	24	52.2%	0.51	6	0.30	-40.6%	4	-33.3%
BC	27.34	428	5.46	20.0%	129	30.1%	2.58	38	0.84	-67.5%	20	-47.4%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V .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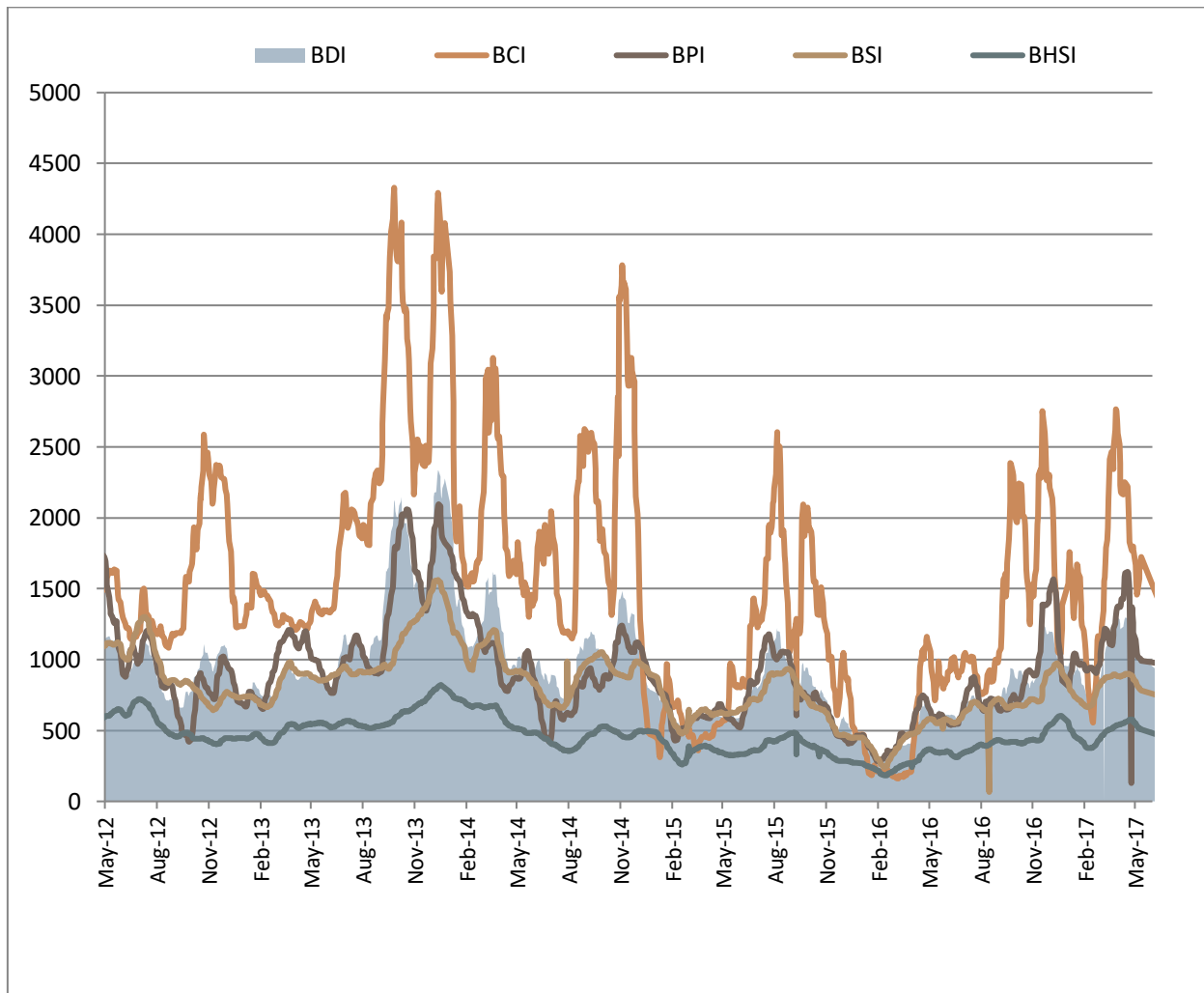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REMARKS
CONT	MTT KUCHING	12,583	5248	1992	GERMA NY	B&W	350	BANGLADESH



VI.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7-05-26	2017-05-19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912	956	-44	2337	290
BCI	1591	1668	-77	4329	161
BPI	845	870	-25	2096	282
BSI	721	759	-38	1562	243
BHSI	469	502	-33	821	183





VI.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12.50	-0.50	298.50	5.50	289.00	-4.50
IFO180	336.00	0.00	335.50	9.50	375.50	-2.00
MGO	468.50	5.50	451.00	11.00	480.00	6.00

❖ 기준일 : 5 월 26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7-05-26	2017-05-19	CHANGE
미국달러	1118.00	1125.20	-7.20
일본엔(100)	1000.31	1009.65	-9.34
유로	1253.11	1250.21	2.90
중국위안	162.73	163.66	-0.93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박람회	NOR SHIPPING 2017	5.30 (화) ~ 6.2 (금)	Norges Varemesse, Oslo	-세계 4 대 조선 및 조선기자재 전문전시회 - http://messe.no/en/nor-shipping/Exhibitors/
포럼	SHIPOWNERS FORUM 2017	6.14 (수)	Onassis Cultural Centre, Athens (TradeWinds)	Returning on June 14th, 2017, the TradeWinds Shipowners Forum takes place at the Onassis Cultural Centre against a changing political backdrop and a challenging commercial environment.
교육	해운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6.26 (월) ~ 6.30 (금)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	- 선박금융(석훈욱 KSF 선박금융 상무) - 용선개요(이광희 이양해운 회장) - 해운시황(백대현 전 한진해운 전무) - 해상위험과 보험(손점열 태크마린 부사장) - 선박매매중개(이광희 피데스 사장)



VIII. CONTACT INFORMATION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Danny Park (박준섭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Mob. 010-5299-1126

snp@stlkorea.com

danny@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Patima J.H. Lee (이지혜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 010-6455-1646

snp@stlkorea.com

patima@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